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9호 [무제 제25983호] 주제 107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

주제 107 (2018)년 4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혁명발전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4월 20일에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소집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모범적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랜 기간 당초급선진일군으로 활동하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본뜻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태워오신 모범 학습강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칠도성룡시대 중대장 강훈복은 지난 30여년간 한소초에서 학습강사로 사임하면서 철세위인들의 불우의 고전적교과를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제독하고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자료들을 학습내용에 맞게 반영하여 대중교양의 필요성을 높였다. 당초급선진일군으로서의 책임감을 간직한 봉성구역 봉추1동 48인민반 김현숙은 실감있는 현상자료들을 적극 수집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강의를 결합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 고무

추동하였다. 덕천지구단편면합기업소 덕성안광 로동자 리명일, 문평제련소 로동자 강문길은 대중의 흥미정도와 심리에 맞는 강의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온갖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었으며 생산과 관련한 기술자료들을 현장에 정상적으로 제시하여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훌륭한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일념에 정양남 새기공공장 로동자 박해영은 높은 실력을 소유하고 강의를 실득력있게 하여 《우리 학습강사》로 친근하게 불리우고있으며 원산 통신비료공장 로동자 김경숙도 실천적모범으로 많은 혁명과업수행에 언제나 앞장서면서 학습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따르고 있다.

은성군 왕제산협동농장 작업반장 오광철, 단천시 병산협동농장 농장원 평상남은 김정은동지께서 교양자료, 과학기술상식 등을 가지고 강의를 실속있게 함으로써 농민 근로자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불태워오키는데 기여하였다. 오랜 기간 학습강사로 사임해온 황해북도당학교 부교장 조철, 강계공업대학 강교장 김옥숙, 평북종합대학 차광수 제1사범대학 교원 김봉진도 선전활동에 창조적인 사색과 탐구, 불같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모범 학습강사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인 총동맹으로 적극 고무추동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뽐라루 씨 잡지가 2017년 명인으로 모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2017년 명인으로 모신 증서에 참가한 서효원 조선대외문벨라루비잡지 《사회교양》이 2017년 4월 11일 벨라루시의 민스크 화면파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명인으로 모시였다. 이에서 진행된 백두산위인칭송 기념행사에 참가한 서효원 벨라루시 조지국전 조직위원회 결성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역기구와 애쉴트정당이 공동명의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의 말씀을 받아안은 모범 학습강사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인 총동맹으로 적극 고무추동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의 말씀을 받아안은 모범 학습강사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인 총동맹으로 적극 고무추동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 예술단 귀국 당과 정부의 간부들 비행장에서 뜨겁게 환송



【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이끄는 중국 예술단이 제31차 4월의 북진 예술공연에 참가하고 4월 18일 귀국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특례적인 환대에 대한 평양 방문일정을 성대하게 마친 중국 예술단 성원들이 귀국하기 위하여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왔다. 비행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중국 예술단에 대한 형제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안고 손기팔과 물다발들을 흔들며 열렬히 환송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동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동지, 문화상 박은남동지 등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관계부서 일군들이 예술단을 진접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송도동지와 중국예술단의 지휘성원들, 주요배우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중국예술단을 태운 비행기는 군중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이륙하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진행된 중국예술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문화교류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공고 발전시키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혁명적인 총공세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 각 당 조직들에서

각 당 조직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길에 세차게 뛰쳐나가는 대모를 받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세목, 문화를 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차게 나뭇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령표구역 류현남새싹협동농장 당조직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어붙여 단위의 전투력을 높여 나가고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모시지오령상과 위대한 수령님의 천지지도교시를 농장에 정중히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실과 연혁소개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 당에 대한 총정성을 깊이 심어주었다. 지난 기간 농장에서 급수시대양광전에 성의껏 마련한 많은 관리도구들을 보내주어 평양총공작원과 증평학원건설을 적극 도와주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는데 이바지할수 있는것은 당조직이 사상교양사업을 선진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많은 공을 들인 결과이다. 당조직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유망농사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는것과 함께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세우고 관계시설을 정비보수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 놓고

안전한 소출을 얻을수 있게 하였다.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지난 10여년간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예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농업과학기술 보급실행을 정상화하고 농장원세마다 5그루이상의 과일나무를 심도록 하여 실지력을 높여 나가고있다. 대대적 육종과 근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농장원들이 신심과 박애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고있다. 문수계도전차사업소 운영1대 대 당조직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총원들을 수도의 령표수총공작을 통해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 힘있게 불태워 나가고있다. 공공장소들에 5대교양관련한 직관선전물들을 많이 갖추어놓는 한편 수도의 교통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온갖 교통수단을 다치지 않는 수평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총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밀어붙였다. 운전사들의 기술적능수준을 높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어붙이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적극 밀어붙여 줄으로써 대대는 전진전투기략적지지를 비롯한 가지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130여대의 넓은 전진전투기를 완성복구하고 수평을 훨씬 높였다. 하여 많은 로력과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지난 10여년간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구내에 수평이 좋은 수백그루의 나무를 심은것을 비롯하여 생산문화, 생활문화화합에서도

본사기자 김순영

